



“제주~칭다오 항로에 일본화물도 흡수하자”

제주연구원, 물동량 확보 방안 연구 보고서 공개
물류창고 지어 양국 상품 제주항 통해 운송 주장
도 “당장 적용하기 힘들어… 도내 수요 발굴 우선”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제주~칭다오 항로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거래되는 이커머스 상품을 보관할 물류창고를 제주에 짓고, 제주항을 경유해 양국간 수출입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제주~중국 간 수요로는 물동량이 부족하니 제주~칭다오 항로에 일본까지 끼워넣어 일본 중국 간 수요도 흡수하자는 주장이다. 제주연구원은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에 따른 물동량 확보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제주항을 단순한 종착지가 아닌 기항지로 재편해 일본 하카타항 등과 연계한 ‘3국 루프 항로’를 구축함으로써 선사 수익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구는 제주~칭다오 항로 선박에 실을 화물이 부족해 제주도 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자 적정 수준의 물동량 확보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구는 지난해 12월말 완료됐지만 연구원 측이 지난 3일 홈페이지에 보고서를 게시하며 일반에게 공개됐다. 연구원 측은 보고서에서 제주의 주력 수출 상품인 화장품, 생수, 소주, 가공식품만으로는 적정 수준의 물동량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제주지역의 중국 수출 규모는 금액 기준으로 2021년 2295만 달러에서 2022년 1443만 달러로 37% 감소한데 이어, 2023년 1271만 달러로 11.9% 줄었고 2024년에는 1000만 달러선까지 붕괴해 914만

달러로 28% 급감했다. 제주의 중국 수입액은 같은 기간 연평균 11.4% 증가했다. 연구원 측은 부족한 물동량을 채울 방안으로 일본과 중국 사이 거래되는 이커머스 상품을 지목했다. 일본 하카타항은 컨테이너 취급항만으로 중국을 대상으로 수출이 활발할뿐만 아니라 제주항과도 지리적으로 가깝다. 연구원 측은 제주항 근처에 알리바바,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상품과 아마존 재팬 등 일본 전자 상거래 상품을 보관할 수 있는 물류창고를 지어 양국 소비자들이 주문하면 제주항에서 칭다오항으로, 또 제주항에서 하카타항으로 상품을 보내는 방식으로 물동량을 확보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연구원 측 제안은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수 있지만 당장 추진하기에는 힘들다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일본 항로를 활용하려면 해양수산부와 협의도 필요

하고, 무엇보다 이커머스 회사들과 (제주에 물류 보관 창고를 지을 것인지 등을) 논의해봐야 한다”며 “현재로선 제주지역 내에서 새로운 대 중국 수출 수요를 발굴하는게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칭다오 항로는 제주도가 57년 만에 처음 확보한 국제 정기 무역항로다. 제주도는 지난 2024년 칭다오 항로 선사와의 협정을 통해 화물선에 실을 물동량이 손익분기점보다 적어 손실을 보면 그 비용을 보전하기로 했다. 중국 선사 측이 손해 없이 화물선을 운항하려면 한 번 배를 띄울 때마다 최소 220TEU(1TEU는 6m 길이 표준 컨테이너 1개)에 이르는 화물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첫 취항 이래 올해 5월까지 31차례 배를 띄우는 동안 손익분기점의 10.4%에 불과한 715TEU만 운송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김매기 구슬땀 5일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한 농경지에서 농민들이 김매기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12월부터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가능 지정 10년 경과 투자 완료 사업자 대상

오는 12월부터 투자를 전부 이행하고 지정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가 가능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를 담은 ‘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시행됨에 따라 해지 절차를 담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

라 제주자치도지사는 투자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자는 지정 10년이 경과한 투자진흥지구에 대해 투자계획 이행 확인서에 따른 증명서류를 첨부해 해지를 신청할 수 있고 도지사로 직권으로 사유 등을 담아 해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투자가 완료된 투자진흥지구의 경우 지정이 해지면 감면된 지방세를 반환해야 하는 부담이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업종의 신규 투자를 추진할 수도 있다. 2002년 도입된 제주투자진흥지구는 관광사업의 경우 미화 2000만 달러, 일반사업은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법인제와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까지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는 45곳이며 지정연도가 10년 이상 지난 사업장은 37곳, 이중 투자 계획을 완료한 사업장은 29곳이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AI 국제학술대회 국내 첫 개최지 제주

오는 9~13일 ICC제주서 열려
구글·알리바바·애플 등 참가

데이터마이닝·인공지능(AI)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국제 학술대회가 제주에서 열린다. 1998년 출범 이래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구글·알리바바·아마존·에어비엔비·마이크로소프트·애플 등 세계적 빅테크 기업 관계자가 참가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데이터마이닝·인공지능 분야 국제학술대회인 ACM SIGKDD 2026(Conference on Knowledge Discovery and Data Mining)이 오는 9일부터 13

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제주)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1947년 설립된 세계 최초의 컴퓨터과학 학술단체인 ACM이 1998년부터 개최한 대회로, 데이터마이닝·지식발견·인공지능·빅데이터 분야 최신 연구 성과와 응용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다. ACM SIGKDD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해외 50여 개국 2800여명에 달하는 외국인과 내국인 등 3500여명이 참가한다. 대회에서는 구글의 제프 딘 엔지니어, 알리바바의 저우징런 부사장, 레지나 바질레이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등이 기조강연에 나선다. 이상민기자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 3.7% 인상 올해보다 380원 ↑… 월급 환산시 223만6300원

고용노동부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주 40시간 근로·월 209시간 기준)으로, 업종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어 노동부는 지난달 16일 최저

임금안을 고시하고 같은 달 27일자 이의 제기를 받았다. 이 기간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노동자에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반대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인상돼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오히려 고용 축소를 앞당길 수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제기된 이의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내용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이의’ 기각에 행정소송

소상공인연합회는 5일 정부가 내년 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재심의 요구를 거부하고 시간급 1만700원으로 확정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공연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790만 소공인이 제기한 2027년도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안을 기각한 것에 대해 절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하고 형식적인 절차 뒤로 숨어버린

노동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현장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구조는 해제 수순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격년 결정 및 업종별 구분 적용 법제화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 ▷소상공인 전폭적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재단법인 서울제주도민회장학회

2026년 제2학기 장학생 신청서류 접수 안내

본 재단에서는 제53차(통산117차) 장학생 선발을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간

2026.08.06.(목)09:00~2026.08.26.(수) 17:00

지급 금액

2,500,000원

□ 선발대상(자격)

- 출신 및 대학:** ①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 회원의 자녀로서 국내 4년제 이상 정규대학 재학생 ②제주 거주 도민의 자녀로서 제주도 이외(국내)에 소재한 4년제 이상 정규대학의 재학생
- 선정 기준:** 직전 학기 평점 평균이 B학점(또는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인 학생을 원칙으로 함. 다만, 경제적으로 특히 어려운 경우 B학점 미만의 학생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원가능함.
- 취득 학점:**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 제외 대상:** ①신입, 편입의 경우 당해 학기의 재학생은 신청할 수 없음. ②장학생 선정된 후 해당 학기 수료 전에 휴학이나 자퇴(또는 퇴학)할 경우 장학생 선정에서 취소되며 지급된 장학금은 반환해야 함.

□ 구비서류

- 본회 소장 양식의 지원서(명함판 사진 부착)
- 접수기간 내에 발급한 **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1통
- 접수기간 내에 발급한 **성적증명서** 1통
- 총장 또는 학장처장, 학장이 발급한 2026년 2학기 **장학금 수혜여부확인서** 1통(학교 양식으로 제출 가능) ※학교 및 타 장학단체(국가장학금 포함)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100만원 이하** 수혜자는 예외
- 등록기준지나 원적지가 제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1통
- 보호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 보호자의 등록기준지나 원적이 제주가 아닌 경우 신청인 본인이 제주에서 초·중·고를 수학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통

□ 접수방법 **본회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소인 인정)만 가능**

□ 접 수 처 **(재)서울제주도민회장학회(02-3662-2651) 07526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57길 10-10, 4층(탈라영재관)**

□ 참고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장학회 이사 및 선정위원은 장학 대상자를 추천할 수 없습니다.
- 접수 마감 일시까지 미비된 서류가 있으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양식은 재단법인 서울제주도민회장학회 홈페이지(www.sjsf.co.kr)나 서울제주도민회 홈페이지(www.jejuinseoul.com)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은 개별 통보하며, 지급 일정도 개별 통보합니다.

2026. 08.

(재)서울제주도민회장학회 이사장 김창희